

지역 미래발전 초석 다졌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이끄는 민선7기가 7월 1일자로 3주년을 맞았으며, 이 시장은 '시민과 함께 남원발전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와 약속으로 민선7기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남원시장으로서의 첫 번째 민선 3선으로 당선된 시장이었던 만큼, 지난 3년간은 5기와 6기 동안의 성과를 동력삼아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각종 현안 사업들을 세심하게 추진함으로 민선7기 후반기 시정의 전기를 마련, 남원 미래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노력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도 따랐다.

특히 이 시장은 국가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며, 자립도가 낮은 남원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국가예산사업과 공모사업 발굴에 적극 대처해 오는 등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 이에 그간의 성과를 조명해 본다.

국가예산 확보 결실

남원시가 확보한 주요사업은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268억) ▲한파우관광클러스터(567억) ▲관광다목적플러스공모사업(150억) ▲수영장·축구장·게이트볼장·축구장·테니스장 등 국민체육시설조성(294억) ▲일반농산업융합발사업(8개소, 359억) ▲남원 도시재생사업(4지구, 326억) ▲도시가로개발사업(2지구, 1,262억) ▲지리산 친환경 전기차량 도입(56억) ▲가족센터 건립(39억) 등이다.

특히, 남원시는 2020년도 국가예산 104건(1,118억원), 2021년도 115건(1,217억)을 확보했고, 2022년도 127건(국비요구액 1,370억원)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지원(10억), 과실전문생산단지조성(14억), 친환경 바이오플라 미꾸리실내양식지원(30억) 등 총 86건(총사업비 1,664억원)의 공모사업에 대응 중에 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최우선 추진

이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시정 최우선 과제로 공약사항 추진을 위해 5대 분야 34개 공약사업의 상향반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현재까지 ▲이행 후 계속추진 25개 ▲완료 2개 ▲정상추진 6개 ▲기타 1개 사업 등 총 34개의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가 실시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021년까지 6년 연속 수상했으며, 지난 4월에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남원시는 전북도 1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남원시는 공약 이행 준수는 물론, 도내 최고 수준의 종합행정력 제공을 입증시켰다.

골목길에 응성하는 문화관광 도시 건설

이 시장은 남원을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특히 남원을 대표하는 부동의 1위 춘천과 광한루원에만 안주하지 않고 남원관광의 중·단기 계획을 마련, 지난 10년간 광한루원 주변 5개 지구에 전통한옥 숙박단지 및 예촌길, 전통가 조성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광한루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를 형성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도심권 관광과 산악관광활성화라는 두 트랙(two-track) 전략도 본격 실행했다.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에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으며, 실제로 남원관광지 민간투자개발사업(388억원)과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1,902억원)이 그 대표적 사례다. 남원관광지 민간투자개발사업 유치로 인해 남원관광지 내에는 모노레일, 썰매장 등이 설치되며, 대신면 육물리 일원에는 호텔, 골프장, 워터파크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지난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된 것도 남원관광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토대가 되는 중요한 성과가 됐다.

또한 남원시에서 오랜 기간 공들여온 친환경 전기차량사업은 올해 국가 R&D예산 47억원을 확보, 7월 시범노선 지자체 공모 대응으로 곧 사업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원조성-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이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원을 만드는 데에도 매진했다. 먼저 지난 2020년 10월에 준공된 남원 일반산업단지 1공구에는 현재 (주)CK안전재료, (주)대승



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 체결



전북대 남원캠퍼스와 협약

현재까지 총 34개 공약사업 순조도심권·산악관광 활성화 본격 남원 일반산업단에 9개 기업 유치 화장품사업도 '고공행진' 중 비대면 시정설명 등 행정 다변화

엠앤에스 등 2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주)에스더블유케미칼즈 등 9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남원시 전략사업인 화장품사업도 고공행진 중으로 시는 지난 10년간 화장품산업 육성에요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먼저 화장품산업 기반구축 단계의 마무리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노암산업단지 내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형 공장조성로 지어질 센터는 올 3월에 착공, 내년 8월이면 완공될 예정이며, 이 같은 인프라 조성되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용기업체, 원료업체 등 관련업종 입주로 화장품 산업이 더욱 집적화될 예정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고 있어, 지난 2017년부터 본격 추진된 화장품 원료 개발은 현재까지 지리산 자원식품 944종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구축, 그 중 30종이 미백, 주름개선, 보습 향산화 향균 실험을 거쳐 화장품소재로 개발 및 연구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에서부터 유통 가능하도록 발행한 남원사랑상품권을 2021년에만 750억원을 발행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켰다. 지난해 11월에는 카드상품권까지 도입해 편리성은 한층 높이고 자금역의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이밖에도 남원의 미래산업이 될 수 있는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활용센터 건립도 큰 성과로, 주생면이 드론활용센터로 확장되면서 남원시는 향후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지정 등 미래 드론산업 육성이 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교육, 촘촘한 복지환경 구축

남원시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는데도



이환주 시장의 포부

미래 앞당기는 현안 더 세심히 챙길 것

민선7기 취임 3주년을 맞은 이 시장은 "한 마음 한뜻으로 남원발전의 열망과 신뢰를 보여 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히며, 역대급 수해,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상황에도 이를 잘 극복해준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남원 만들기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민선 7기 후반에는 열심히 뿌려놓은 씨앗들을 성과로 완성하기 위해 해연경장(解嚴更張) : 느슨해진 줄을 긴장도록 다시 고친다는 마음으로 더 큰 남원의 미래를 완성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펼치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00여 공직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일차게 마무리하고 남원의 미래발전을 앞당기는 주요 현안 업무, 숙원사업 등을 더 세심히 챙겨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기우 기자

"역대급 수해·코로나19 등 위기 속 극복해준 시민에 무한한 감사·존경" 표명

"시민 중심 시정 집중 추진사업 알차게 마무리"



랜선 시정설명회

힘을 모아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계약학과) 유치, 으뜸인재육성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확보했으며, 특히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시행하는 등 다양한 연령층의 교육기회에 확대시켰다.

이 시장은 이밖에도 촘촘한 복지환경도 구축을 위해 약390억원을 투입해 지리산권 복합SOC 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약자가 행복한 도시가 건강한 도시'라는 신념 아래 남원형 다문화 정책 추진과 장애인 복지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추진 중이며, 결혼이민자 여성 친정 보내주기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남원시가 다문화가족의 지역 사회정착에 기여하면서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14회 세계인의 날에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남원시는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 어르신들을 위한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개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 한 단계 높아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가소득 향상과 귀농귀촌 환경조성으로 풍

의 대책을 마련, 코로나 여파를 최소화시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지역 선별카드를 선택, 타 지자체보다 2주 앞당겨 3만16,321세대에 총 23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정부지원과 별개로 ▲2020년 9월에는 남원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격려와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남원시는 올해 코로나 19 백신접종률도 월등히 높여 집단면역 형성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남원시의 백신접종률은 19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시민 대비 1차 42.96%(3만14,405명), 2차 15.28%(1만12,240명)로 집계돼 총 43%의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국 28.97%, 전북 35.78% 보다 월등히 높은 성과로, 지난 2월부터 타 시도보다 먼저 접종대응에 나서고 4월부터 춘향골 체육관에 집중센터를 개설·운영한 것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포스트 코로나 및 행정의 다변화 도입

이환주 시장은 올해 온라인(비대면) 시민소통·공감의년 랜선 시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행정의 다변화도 시도, 올해부터 온택트 행정 등을 다양하게 도입, 포스트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대응, 행정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는 현재 카톡을 이용한 민원상담 서비스, 지역 내 다양한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 개발 중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초 전북 최초로 랜선 시장설명회를 개최해 주민과 생생한 소통·공감하는 장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으며, 처음 시도했지만 비단작한 소통행정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시장은 행정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친절과 소통행정을 최우선으로 꼽아온 만큼, 시민·수요자중심의 친절행정 환경도 조성했다.

올해에는 랜선시정설명회 후속으로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환주 시장과 함께 하는 동네한바퀴 ▲남원시민 원탁회의 ▲120만 원봉사대 운영을 통해 생활밀착형 소통행정과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데 힘썼다. /남원=김기우 기자